

눈길 끄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 TV 광고 김세진 감독 등 OK저축은행 배구단 출연

OK저축은행(대표이사 정길호)이 지난 9월 선보이기 시작한 '중도해지OK정기예금' TV 광고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프로배구단을 이끄는 김세진 감독과 김요한, 송명근, 송희채, 이민규, 조재성 선수가 함께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 광고에서 김 감독과 선수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표정한 콘셉트의 연기를 잘 소화해 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광고 촬영장에서 김 감독의 배구단은 "2017-18 V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배구단이 광고에 참여한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기본 금리가 세전 연 1.8%인 예금상품인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8%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기본금리가 1.37%, 증권사 CMA 금리가 1.15%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금리다.

이 예금은 10만원 이상부터 5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6개월이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지해도 금리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 큰 금액 상관없이 보통예금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판매한 이 상품은 11월 14일 기준으로 수신잔고 900억원을 넘어 1천억원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

